

한국야구 자존심 일본열도에 쏘아 올렸다



한신전 1·9회말 투런포...대기록 금자탑 30세 이전 400홈런 세계 세번째 기록

■ '아시아 거포' 이승엽 홈런 순간

'아시아의 거포' 이승엽(29·요미우리)이 한-일 통산 400·401홈런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승엽은 1일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진 2006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경기에서 1회말 2사 3루, 볼카운트 2-3에서 상대 선발 이가와의 8구째 143km짜리 직구를 밀어쳐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2점 홈런을 뽑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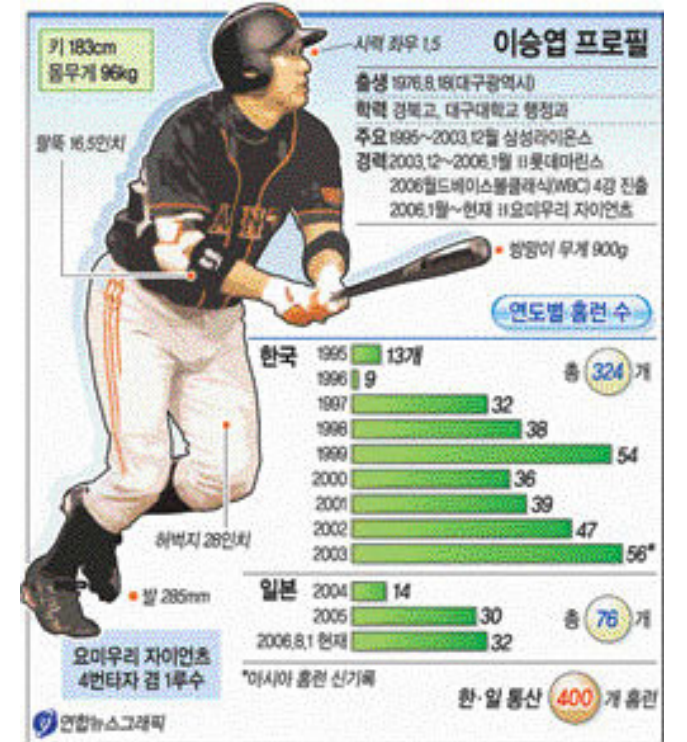
이승엽은 이어 2-2로 동점이던 9회말 2사 1루서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터뜨려 시즌 33호 홈런과 통산 400·401호 홈런을 달성했다. 이승엽은 이날 4타수 2안타(2홈런), 4득점으로 팀 4-2 승리의 주역이 됐다.

한국에서 324개의 홈런을 날린 뒤 2004년 일본으로 진출했던 이승엽은 이로써 2시즌 반만에 77호를 기록, 한-일프로야구 통산 400홈런의 대기록을 넘어 401호째 터뜨렸다.

특히 1976년 8월18일생인 이승엽이 만 29세 11개월 13일만에 달성한 400홈런은 일본 오사다하루(王貞治·29세 151일), 미국 알렉스 로드리게스(29세 316)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빠른 나이에 이뤄낸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소속 팀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진 가운데 이승엽은 이날 경기전에도 개인성적보다는 팀 성적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한국식으로 화라도 내고 싶다"며 철저한 승부 의식을 드러냈다. 이승엽은 자신의 다부진 각오를 행동으로 보여주듯 경기 초반 통렬한 선제 홈런으로 자신의 400호를 장식했다.

1회초 수비를 삼자범퇴로 넘긴 요미우리는 공수 교대 뒤 선두타자 야노가 좌익선상 2루타, 2번 기무라는 보내기 번트로 1사 3루의 찬스



를 잡았으나 3번 니오카가 무기력하게 내야 플라이로 물러났다. 홈 팬들의 환호속에 타석에 나선 이승엽은 초구 헛스윙, 2구 파울로 불리한 볼카운트가 됐지만 한신 선발투수 이가와 게이를 끈질기게 공략한 끝에 도쿄돔 좌측 펜스를 시원스레 넘어가는 투런 홈런으로 기선을 잡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승엽 400 홈런 얼마나 걸렸나

삼성 입단 1995년 1호...총 11년 3개월

이승엽이 프로 첫 홈런을 터뜨린 뒤 한일 통산 400홈런까지 걸린 시간은 총 11년 3개월.

경북고를 졸업하고 1995년 연구구단 삼성 라이온즈에서 프로 데뷔한 이승엽은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했고 그해 5월2일 광주 해태(현 KIA)전에서 6회 이강철의 커브를 잡아당겨 우측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올리면서 홈런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첫해 13개, 이듬해 9개의 아치를 그린 이승엽은 1997년 32발을 터뜨려 홈런 1위에 등극하며 한국 최고 거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승엽은 프로야구 외국인선수 제도가 도입된 1998년에는 타이론 우즈(당시 OB)와 함께 장종훈(은퇴)이 보유 중이던 한 시즌 최다홈런(41개) 기록에 동반 도전했고 당시 38개로, 42개를 친 우즈에 아쉽게 신기록의 영광을 넘겨줘야 했다.

하지만 로마이어(45개), 샌더스(40개), 스미스(40개), 호세(36개) 등 용병들이 무섭게 몰아치며 한국프로야구 최다 홈런사를 다시 썼던 1999년 이승엽은 무려 54개를 터뜨리며 오사다하루(王貞治)가 갖고 있던 한 시즌 최다 홈런 아시아신기록(55개)에 한 개차로 육박, 한일 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었다. 1997년, 1999년, 2001~2003년 등 홈런왕을 5번 차지했던 이승엽은 2003년 마침내 아시아 신기록인 56발을 쏘아올린 뒤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 진출을 선언했다. 이승엽은 홈런 신기록을 써가던 중이던 2003년 6월22일 대구 SK전에서는 26세10개월4일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300홈런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04년 4월4일 지바 마린스스타디움에서 벌

어진 다이에 호크스(현 소프트뱅크)전에서 4회 우월투런포를 작렬하며 일본무대 1호 홈런을 신고한 이승엽은 그러나 현지 적응에 실패하며 14개로 그 해를 마감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 진출 2년차이던 지난해 좌투수가 나오면 벤치를 지키는 '플레툰시스템' 와중에서도 30개를 폭발시키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특히 한신타이거스와 벌인 일본시리즈 4경기에서 이승엽은 생소한 센트럴리그 투수들을 상대로 홈런 3방, 6타점을 몰아치며 일본 전역에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때 얻은 자신감으로 이승엽은 올해 1루선발 출장이 보장된 센트럴리그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했고 개막전부터 '아치쇼'를 벌이며 89경기만에 30홈런에 도달하는 개가를 이뤘다.

그동안 조성민, 정민태, 정민철 등 한국투수들의 무뎠음으로 인식됐던 요미우리에서 이룬 성적이라 그 감회는 더욱 남달랐다.

지난 3월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홈런(5개), 타점(10개)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것도 일본 진출 3년 만에 최고 타자로 우뚝 설 수 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구종·타구방향 분석

직구 201개 '최다'...슬라이더 44개

부채살 방향으로 고르게 넘겨

"무조건 때려낸다" 이승엽이 한국시절 터트린 홈런 324개를 분석하면 구종별로는 직구가 201개로 가장 많았고 슬라이더(44개), 체인지업(35개), 커브(29개) 순이었다. 스윙 자체가 물흐르듯 부드러운 데다 투수들의 볼 배합을 원히 읽고 들어오는 노림수가 훌륭했다. 일본에서 지난 2년간은 몸쪽 빠른볼과 중

으로 떨어지는 포크볼에 대한 대처가 미비, 홈런은 주로 가운데 직구에 편중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일본투수들의 스타일에 완벽히 적응하면서 몸쪽, 바깥쪽, 가운데 가릴 것 없이 부채살 방향으로 고르게 홈런을 보내고 있다.

올해 30개의 홈런을 분석하면 우월홈런이 17개, 좌측이 5개, 가운데 방향이 8개였다.

구종도 직구(15개), 슬라이더(6개), 포크볼을 위시한 체인지업(5개), 커브(3개) 등 고루 퍼졌다. /박진표기자 lucky@



함평다이내스티CC내장객들이 모금함에 수재의연금을 넣고 있다.



함평다이내스티 수재민돕기 180만원 기탁

7, 14일 흑서기 휴장

○4계절 양진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는 최근 수해피해를 당한 수재민돕기 모금운동을 펼쳐 18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함평 함평다이내스티CC는 흑서기를 맞아 시설물점검과 페어웨이 보호를 위해 오는 7일과 14일 이틀간 휴장 한다.

과학영재 28명 퍼팅 실습

○골드레이크CC는 지난달 31일 여름방학을 맞아 나주영재교육원 과학고

실 초·중학교 수감생 28명을 초청, 그린에서 직접 퍼팅을 하는 등 골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영섭 골드레이크CC사장은 "주기적으로 골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초청, 기본지식을 습득시키고, 실습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골프꿈나무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